

광주 사람들의 인물·말·장소기억 담다

광주문화재단 '근현대 광주사람들' 등 3권 펴내 광주인물 조명·사투리 정리·장소 문화사적 풀어

"하루가 멀다 하고 사라져가는 근현대 문화유산 중에서도 특히 인물자원은 누군가 기억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잊히기 쉬운 무형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근현대 광주사람들』 중에서)

"전라도 말은 통일된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골골 섬섬 각양각색이요, 시시 각각 변화하는 생물체와 같다. 그 중 '무등골 사람들이 쓰는 전라도말'을 여러 관점에서 탐색하는 작업은 매우 절실하고 의미가 크다."(『말의 자리』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적인 공간이면서 저마다의 비밀스럽고 간절하고 설레는 이야기가 흐르는 곳. 누구든지 잠시라도 머물러야 하지만 또 금방 떠나고 잊히는 곳이 정거장 아니던가."(『정거장, 움직이는 기억』 중에서)

『인물』, 『말』, 『장소』는 특정 지역에서 거주하는 이들이라면 공통으로 인식하고 공유하는 모티브다. 공통의 기억과 인식은 소소한 이야기 외에도 지역 문화예술사를 관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광주 사람들의 기억과 일상 가운데 인물, 말, 장소기억을 담은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봉년)이 펴낸 '근현대 광주사람들'(1만6000원), '말의 자리'(1만5000원), '정거장, 움직이는 기억'(1만5000원) 등이 그것.

먼저 광주의 인물을 조명한 '근현대 광주사람들'은 광주학총서 시리즈 11번째 책이다. 광주학총서 시리즈는 지난 2012년 고(故) 박선홍 선생의 '광주 1백년' 증보판 출간을 시작으로 매해 시리즈를 발간하며 지역문화사를 정리했다.

특히 이번 책은 광주의 근현대 역사를 살아온 미술·건축·판소리 등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과 '예술가'에 대해 다룬다. 구체적인 내용은 '광주의 노블레스', '근대 서양화의 도입과 광주 서양화단', '도시화 시대 광주천과 사람들', '광주를 노래한 대중음악인들', '건축가 김태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1980년대 전후 광주민중문화운동', '정근의 동요와 어린이 문화운동', '광주 판소리 전통과 명창 박동실', '광주무용의 대모 박금자의 예술세계와 광주발레' 등도 소개돼 있다.

필진으로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주광 한국방송DJ협회 기획이사, 전득영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김현숙 광주 근·현대건축가 연구자, 전용호 소설가, 박선희 광주로얄발레단 대표 등 장르별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다.

광주의 현대 사투리를 정리한 책 '말의 자리'는 문화재단과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의 공동작업 결과물이다. 지역말 연구자들이 '광주어'에 얽힌 추



억과 생각들을 맞닿는 수필로 적어냈으며 국어학 전문가가 선별한 광주의 일상이 61개를 풀어놓았다. 저자들이 생활 속 사투리를 쓰면서 겪었던 일상 애기는 재미를 더한다.

책의 구성은 '햇속에서 배운 말 방언', '광주와 전라도는 어딜 가도 우리 마실 맵기다', '7년의 추억', '유년시절의 언어와 상소리의 미학', '말의 기억', '살과 말의 동행', '진짜 죽인다는 말이 아닌 '디진다, 디제'', '무등에서 극락까지 시를 따라 흐르다', '광주어 용어 풀이' 등이다.

필진으로 손희하 전남대 국어국문과 교수, 위평량 금호중앙여고 교사, 이기갑 목포대 명예교수 등 국어학, 국문학 분야 지역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마지막으로 '정거장, 움직이는 기억'은 머무르다 떠나는 공간인 정거장에 초점을 맞췄다. 교통수단별 정거장, 공항과 지하철역 그리고 고속버스정류장 등을 배경으로 장소의 문화사적 배경과 필자 경험 등을 다채롭게 풀어낸 에세이집이다. 책은 광주의 집합 기억과 일상의 소재를 지역 문화자산으로 발굴하고 기록하기 위해 쓰여졌다. 특히 일반 시민들이 광주 관련 서적을 쉽게 공감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는 게 특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과 차부'(공선옥 소설가), '간이역1, 2'(곽성숙 시인), '화초를 키우는 역, 화분을 치운 역'(김동하 소설가), '시작이자 다시 시작인'(송은일 소설가), '광주공항-내 마음속 비행기'(은미희 소설가), '잊지는 말아요-광주역과 남광주역'(이화경 소설가) 등이다.

한편 책자는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서점 알라딘과 독립 출판 플랫폼 인디엠펜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과종모종', '책과생활', '리브앤프린', '연지책방', '동네책방 숲', '책방심사' 등 6개 지역 책방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062-670-749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남 미항사의 대응보전(보물 제 947호) 해체보수 및 보존복원 불사가 오는 22일 고불식을 갖고 시작된다.

해남 미항사 대응보전 '천일 간 휴식'

해체보수·보존복원 불사

22일 고불식...2025년 완공

해남 미항사(美峯寺)를 수식하는 말은 다양하다. 땅끝마을 아름다운 절 미항사, 말마산 암봉을 병풍으로 두른 단아한 사찰, 이른 봄을 맞이하는 산사 미항사 등. 그만큼 미항사는 방문객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다가온다.

미항사는 조계종 제22교구 본사인 대흥사의 말사로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사찰이다. 통일신라시대 때인 749년(경덕왕 8) 의조가 창건했다고 전해온다. 무엇보다 "세속과 멀리 떨어진 땅끝마을, 모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문구는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힐링과 쉼의 시간을 준다.

미항사의 보물 제947호 대응보전이 천일 간의 긴 휴식에 들어간다.

대응보전의 해체보수 및 보존복원 불사가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복원 공사는 3년 정도 걸릴 예정이며 오는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사찰 측은 법당 기둥 위쪽과 단청을 수리하고 가급적 원형 복원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문 주지 스님은 "대응보전 보수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대들보가 위험한 상태"라며 "쌓여온 세월의 아름다움이 가리워져서 안타깝

지만 더 큰 염원을 품고 새로운 희망으로 거듭나기 위한 천일의 정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미항사는 불사를 앞두고 부처님 전에 의식을 전하는 '고불식'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경내에서 거행할 예정이다. 현재 대응보전 앞 마당에 가건물을 지어 불사이나 대응보전 보물을 옮기고 있으며 지금은 거의 마무리단계다.

문헌에 따르면 미항사 명칭은 '경전과 불상을 싣고 가다가 소가 멈췄다'라는 설화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749년 8월 의조가 제자 등과 함께 목욕재계하고 해변으로 나갔더니 배가 육지에 닿았다. 안에는 '화엄경', '법화경', 비로자나불, 16나한의 탱화 등이 있었다.

그날 밤 꿈을 꾸는데 금인(金人)이 나타나 "금강산이 일만 불을 모실 만 하여 배에 싣고 갔지만 봉안할 곳을 찾지 못했는데 여기가 인연토인 줄 알고 멈추었다"고 말한다.

이후 소가 경전과 불상을 싣고 가다가 누웠다 일어난 곳이라 하여 미항사가 건립됐다는 설화가 전해온다.

현재 미항사에는 대응보전 외에도 응진당(보물 제1183)을 비롯해 달마전, 괘불, 명부전, 세심당 등이 있다.

한편 이번 복원 공사는 문화재청 지원과 해남군의 시공사 선정을 통해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이남, 서울 '스마트쉘터 미디어파사드'에 작품 5점 전시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신-몽유도원도' 등 설치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미디어파사드'에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스마트쉘터'는 기존 낙후되고 불편했던 정류소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도입한 최첨단 교통 서비스다.

이 작가는 고전명화에 디지털 기법을 접목,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고흐 별이 빛나는 밤에', '크로소버 쇠라', '김홍도-목죽도', '신-몽유도원도', '아사천에 매화꽃 피었네' 등 총 5점을 전시중이다. 미디어파사드는 휴대 상·하행, 합정 상·하행, 송례문 5곳에 설치됐다.

서울시는 최근 자동 정차 시스템, 공기정지기, UV 에어커튼, CCTV, 냉난방기 등 각종 편의시설이 융합된 스마트쉘터를 접목한 미래형 버스정류소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활용, 전시공간을 구현해냈다. 이번 프로젝트는 버스정류소가 문화예술의 장으로 변모하고 도심 속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벨기에, 라트비아, 스페인, 카자흐스탄 등 해외 대사관 초청 전시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중앙버스정류소 '스마트쉘터 미디어파사드'에 설치된 이이남 작가의 작품.

중국 허난성에서 '세계 최대 미디어아트 파사드'를 선보인 이 작가는 올 상반기에는 두바이, 헝가리, 서울, 부산 등에서 전시를 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BTS 웹툰·웹소설, 이틀만에 조회 수 1500만 건 넘어

'세븐 페이스: 착호'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모티브로 한 웹툰과 웹소설이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누적 조회 수 1500만 건을 넘어섰다. 18일 BTS가 소속된 하이브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을 통해 공개된 '세븐 페이스: 착호'(7FATES: CHAKHO) 웹툰과 웹소설의 누적 조회 수는 전날 기준 1500만 건을 돌파했다.

지난 15일 작품이 공개된 지 이틀 만이다.

하이브 관계자는 "네이버웹툰 데이터를 보면 초반 지표 성과가 역대 론칭 작품 가운데 최고 기록"이라며 "10개 언어로 동시에 론칭한 것 역시

업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세븐 페이스: 착호'는 조선 시대 호랑이 잡는 부대로 알려진 '착호갑사'(捉虎甲士)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웹툰과 웹소설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BTS 멤버들이 범 사냥꾼으로 변신한다.

BTS 협업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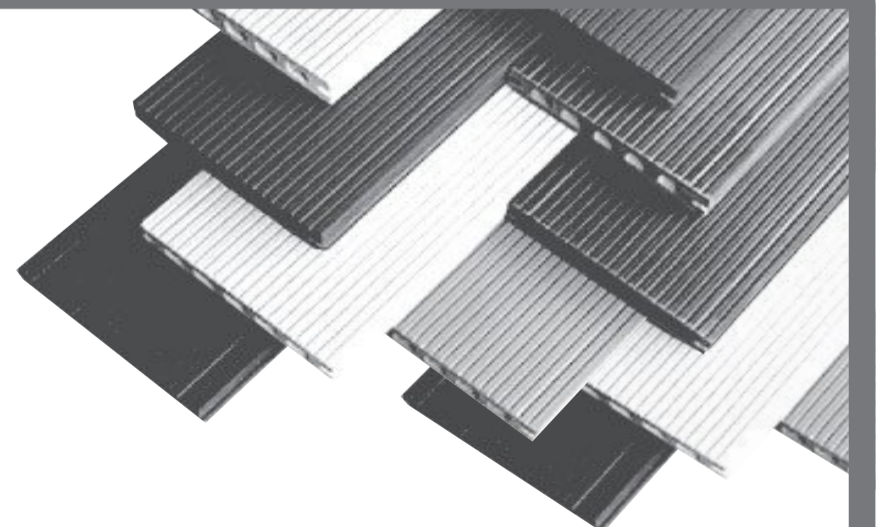
'세븐 페이스: 착호'는 공개된 이후 네이버웹툰의 영어·일본어·스페인어·프랑스어·독일어·태국어 등 6개 언어 서비스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 부분에서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이브는 전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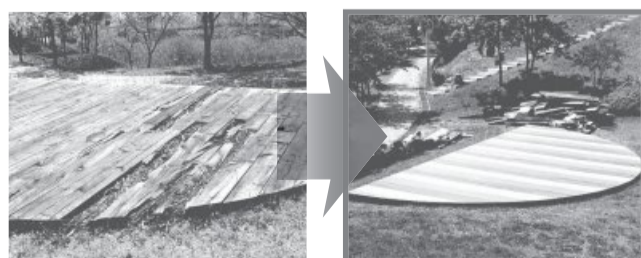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